01.31.금요일

* 새로 발표되는 법안… 이것이 나에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AI가 뉴스의 축적된 정보를 판단으로 알려줌  
  - 개인 정보 입력 (사는 곳, 직업 등등)  
  - 기존 법안들과 뉴스 텍스트 분석 – 긍부정 판단
* Pose estimation  
  - 초기 단계에선, 무조건 많이 운동. 자세교정에 집중.  
  - LG U+가 제공 중
* 3초만에 적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서비스 (스타트업 Fountain 서비스 참조)   
  -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하니 이를 빠르게 연결시켜줄 수 있음  
  - 비정규직을 위한 플랫폼  
  -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구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인지 다양한 사항들을 볼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은 단순한 조건만으로 필터링 가능, 이쪽 일은 항상 사람이 많이 필요함  
  - 알바몬 너무많음. 어느정도 규모만 정해주면 알아서 찾아주게 끔!  
  -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 피시방 알바를 했다. 다른 피시방 알바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알바천국 보면 고르기 너무 어려움 (선택 폭이 넓음). 알바를 구하는 사람 뿐 아니라 찾는 업체도 타겟팅하기가 너무 어려움. 100명 가까이 몰리니까. 그래서 더 힘듬. 업체 입장에서 타겟팅하기 어려우니까 머신러닝으로 원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을 타겟팅!  
  - 조건을 넣고 서브밋 하면 구할 수 있게!  
  - MVP 위해서는. 유저의 정보를 어떻게 임베딩 하는 지를 논문보고 참조해야. 데이터 넣을 때는 알바하고 난 후의 후기 같은 것이 필요.  
  - **시장조사** 필요할 것 같음 -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  
  -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꿔야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해야할 지 논의 필요**)
* 위의 아이디어에 추가 생각 : 알바 사람 스케줄표   
  - 차라리 단기 알바임을 자처하고, 그 안의 괜찮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추천.  
  - 계약 종류 후, 그 이후에 일할 사람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천.
* 로톡 대신 의료톡  
  - 의료형 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음. 안전불감증인 사람들도 많아.  
  - 의사보러 갈 시간은 없지만, 상담하고 싶음.
* 무인결제  
  - 무인은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 데이터 모으려 함.  
  -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빵집은 (연신내 파리바게뜨 네다섯 근무, 30평도 안됨). 포장도 해야해서 계산 자동화가 필요해 보임  
  - 재고관리도 가능할 듯
* 스케줄링  
  - 비서 역할 대신 해주는 것  
  - 일본에서는 각 기업 대표의 스케줄을 최적화. (시간 관리)
* 회사 내 직원들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  
  - 다양한 기업 문화들, 기업 문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려 하는데 각 회사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시간을 짜줌!  
  - 대기업은 기업문화가 딱딱하고, 출퇴근 자유롭지 않은 것 반영. -> 업무 지시가 최적화되지 않음.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알려줄 수 있는 방안!  
  - 시간관리의 주도성을 직원에게 넘길 수 있게. 직원의 일의 성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 일을 모두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업무를 배분. 한달에 걸리는 프로젝트양을 3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기업 팀장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끝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 **데이터 형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숫자, 직원들이 얼마나 일하는 지의 지표가 들어가고.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지는 따로 데이터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에 따라 업무의 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줬는지 객관화 시키며 보여주고, 얼마나 짧은 시간내에 동일한 양의 일을 했는지 질적으로 보여주자! (기업 문화가 중요)  
  - 초기 스타트업에게 어떻게 회의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업무를 어떻게 데이터화해야하나**… 아마존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컴퓨터 비전으로 보고 정량화시킴.(윤리적인 문제) 그런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  
  - 서비스업은 업무의 데이터화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음  
  - 출첵 관리 기반으로 월급 줘야 함. 보통은 얼굴 인식이나 다른 식으로 입증함. 이런 API를 따와서 출첵 여부를 알 수 있음.
* 강의자료 기반,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보여줌.  
  - 링크를 우리의 웹페이지에 넣고,
* 바코드, 음식사진을 찍으면 음식성분표 분석해주는 것.  
  - 계속 안 하게 될 것 같음  
  - 대상이 한정적이게 될 것 같음. 알러지 있는 사람, 비건에게.  
  - 유통의 정보도 알려주면 좋을 듯. (따지는 사람도 있으니)
* 빵집 무인 결제  
  - 이미지 찍으면 결제.  
  - 빵 구성성분 볼 수 있음 좋겠다  
  -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 아마존고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음. 일반 음식점
* 대형마트 컨베이어 벨트 계산  
  - 대형 식료품매장에서 키오스크 못 쓰는 이유는 모든 신선식품에 태그를 붙이기 어려움. 그것에 인력을 소비해야해서 못 함.  
  - 미국보면, 혼자 셀프 계산대로 계산함. 월마트에서도 하는데, 1분넘게 걸림.  
  - 사진을 촬영해서 계산함  
  - 겹쳐진 물건은 무게를 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시켜줌
* 우리 웹페이지에 기사나 링크를 넣음. 네이버 전문기사 구글 검색 페이스북 해서 이 링크가 이 필터링한 데이터를 근거로 사실인지 아닌지 (허위 인지 아닌지 판단)
* 웹툰을 실제 사진처럼 바꾸기  
  - AI 몽타주 있음  
  - 텍스트 입력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이미 있는 기술)
* 인사관리 시스템